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8일 월요일 (음 4월 13일) 제18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연두빛 어린 새순 돋은 진안 메타세쿼이아 길

진안-전주 방향 모래재 터널 못 미처 길게 이어진 부귀 메타세쿼이아 길은 진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다. 쪽 뺨은 길 중간에 살짝 허리를 비틀어 여유 있게 돌아가는 길이다. 꽃보다 예쁜 연둣빛 길을 걷노라면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에 매료된다. 천천히 쉬어가며 거닐어 보는 건 어떨까? /진안=우태만 기자

5.9 촛불대선 D-1 전국 사전투표율 26.06%

전북, 31.64%로 투표율 '상위'

지난 4일 전북도청 4층에 마련된 효자4동 사전투표소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관련사진 2면> 도청 공무원부터 직장인 및 주변 주민들까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자녀들의 손을 잡고 투표를 하러 나온 시민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선 최초로 실시된 사전투표 열기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가운데 전북도는 31.6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 34.48%로 가장 높고 대구, 22.28%로 가장 낮아 정당별 반응은 '엇갈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19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이날 오후 6시 전북지역 선거인수 152만 5626명중 48만 2694명이 투표해 31.6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6.0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시가 34.48%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34.04%, 광주가 33.67%, 전북이 31.64% 순으로 높았다. 대구는 22.28%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제주(22.43%)와 부산(23.19%)도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 투표율과 비슷한 투표율을 보였다. 서울은 26.09%, 경기 24.92%, 인천 24.38% 등이다. 지역별 투표율은 진안군이 35.07%

“동서교통망, 국가핵심사업으로”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와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전국적 통행비율'이 70%에 달해 지역육원 사업이 아닌 국가핵심사업으로 전환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교통DB를 활용해 전주~김천, 무주~대구의 통행 시작과 종료지점 데이터를 특정링크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전국적 통행비율'이 전주~김천 철도는 이용객의 63.0%,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이용자의 88.2%로 추정돼 전북과 경북을 잇는 교통망이 양 지역민만의 교통편의가 아닌 전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국가핵심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전북-경북 끊어진 동서 교통망, 국가차원 해결 필요'를 통해 전주~김천 철도건설 사업과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나, 양 지역의 지역통행이 아닌 전국

교통망의 부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과 경북 상황은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강원도와 대비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무주~대구 구간 전체가 아닌 전주~대구 일부 구간만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됐고 철도망 구축에서는 다른 지역의 연결은 모두 완료됐으나,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만 추진되지 않고 있다.

김상업 연구위원은 "전국적 통행비율은 사업구간의 전북 외부지역 발생 통행량을 전체 통행량으로 나눈 것으로 해당사업이 지역내부연계사업인지 국가핵심연계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내부 경제규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에서 교통망을

먼저 구축해서 유발수요를 발생시켜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발수요 발생을 통한 지역개발은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연도·연육교의 건설로 관광객 수가 약 126.5% 증가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을 준 국내 사례가 있으며, 중국에서는 '동변도철도'의 건설로 하이풍장성의 무역역이 55.7억 달러(2009년)에서 213.1억 달러(2012년)로 증가한 사례가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과 전북지역 주요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전북과 경북간의 연계 SOC 우선 공급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열악한 동서간의 교통망이 확보된다면 충분한 유발수요가 발생하고 환경해권과 환동해권을 잇는 국가 신성장동력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홍 기자

전주~김천 철도 무주~대구 고속도 전국 통행비율 70%

전발언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주장

적인 통행 비중이 높아 SOC 투자가 이뤄진다면 충분한 유발수요 확보로 사회적·경제적 순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만금 개발의 본격화, 식품·관광 산업의 재조명, 농생명산업 육성 등으로 전북도는 국가 신성장동력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기반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고 경북 역시 동서교통망의 부재로 중국 물적 교류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늘 오후 황사 물러간다'

'불청객' 황사는 8일 오후부터 차차 약해지겠다. 황사를 씻겨줄 비 소식도 있다. 7일 기상청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109 $\mu\text{g}/\text{m}^3$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m)다. '나쁨'(일평균 81~150 $\mu\text{g}/\text{m}^3$)에 해당한다. /김민근 기자

진안고원의 진안 홍삼

이래서 다릅니다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진안삼 사용!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 063-433-8398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